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9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18년 1월 8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진정한 산별노조로 거듭나는 2018년!

열사 앞에서 새해 시작

2018년 새해가 밝았다. 지부는 1월 3일 천안 풍산공원 열사 묘역에서 시무식을 통해 새해 투쟁을 결의했다. 풍산공원 열사 묘역에는 유성기업영동지회 한광호 열사를 비롯해 5분의 열사가 묻혀 있다. 시무식에 참석한 지부 운영위원들은 열사들 앞에서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노동법 전면개정으로 승리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진정한 산별노조로!

지부는 정기대대를 통해 올해 4대 목표를 밝혔다. 지부 운영의 질적 강화와 투쟁사업장 집중투쟁을 통한 승리로 진정한 산별노조로 거듭나는 2018년을 만들 계획이다. 금속노조가 산별노조로 출발한지 18년째를 맞는 올해 다시 한 번 산별노조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부의 투쟁을 통해 그 의미를 되살릴 것이다.

그를 위해 먼저 2017년부터 이어온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

화 폐기 투쟁을 새해에도 승리할 때까지 이어간다. 모든 노조가 노동3권을 보장받아 누구나 노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임단협 투쟁도 교섭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의제까지 포함하여 교섭 사업장과 교섭권이 없는 사업장 모두가 함께 투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부 임단투가 교섭 사업장만의 투쟁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의 공동 투쟁이 될 수 있도록 노동의제를 발굴해 투쟁을 벌일 것이다.

함께 투쟁하고 함께 승리하는 2018년!

산별노조의 위상을 다시 세우는 2018년이 되려면 무엇보다 함께 실천하고 함께 투쟁하여 함께 승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지부는 올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 투쟁, 임단투, 투쟁사업장 집중투쟁 등 모든 투쟁에서 함께 투쟁하는 기풍을 살리기 위해 애쓸 것이다. 2018년 우리의 투쟁이 산별노조 정신을 되살릴 것이다.

새해 시작과 더불어 임단협도 시동!

금속노조는 1월 12일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교섭요구 공문을 발송한다. 2018년 임단협이 시동을 건 것이다. 지부도 교섭권을 가진 모든 사업장에 교섭요구 공문을 발송하고, 복수노조 사업장은 해당 지회와 협의하여 교섭요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부는 2018년 임단협 준비를 위해 먼저 조합원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조합원 동지들의 의견을 통해 지부교섭 의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더불어 설문조사를 통해 임단협 내용이 사업장 안에만 갇히지 않고 사회적인 노동의제까지 넓어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 많은 조합원 동지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 주요 일정 *

□ 금속노조 공동체활동 진행자 수련회 (1박2일)

1/11(목) 11시, 충북 영동 노근리 평화공원

□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캠페인

1/11(목) 11시 30분, 대전 한밭공동화사업단지 공단식당 앞